

『항도부산』 발간 50호의 회고와 전망

김 현 라*

| 목 차 |

- I. 머리말: 『항도부산』의 창간경위와 발간취지
- II. 『항도부산』의 연구논문과 자료 수록 현황
 - 1. 시대별 구분
 - 2. 기획주제별 구분
 - 3. 자료 수록 현황
- III. 맺음말: 『항도부산』 발간의미와 제언

| 국문초록 |

부산시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항도부산』은 1962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현재 50호 발간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항도부산』은 1961년 부산시사편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집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항도부산』 제2호부터 부산에 관한 연구논문과 자료를 함께 수록하는 형식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항도부산』은 부산의 선사시대·삼한·가야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개항기·일제강점기·해방과 한국전쟁기·현대·민속과 문화 등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산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기획논문과 부산의 역사·문화·사회 등에 관한 연구논문, 그리고 부산지역 고지도·고문서 등에 관한 자료를 소개하며 부산역사 관련

*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강사 / hyeonra@hanmail.net

연구성과를 집대성해왔다. 『향도부산』 제49호까지 실린 연구논문은 총 396편이고, 자료와 서평 등은 76편에 이른다.

『향도부산』에 실린 472편을 시대별·기획주제별·자료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시대별 또는 기획주제별로 볼 때 근대사 이후에 치중되어 있어 부산에 대한 이미지가 전통이 없는 근대 도시로만 인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료수록 현황에는 조선시대 자료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는 기획이나 연구논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았다. 물론 선사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의 연구논문수록과 기획, 자료수록 등은 다른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다.

이상과 같은 『향도부산』의 치우친 연구논문과 자료수록 경향을 보완하기 위하여 『향도부산』을 편찬하는 부산시사편찬위원회뿐만 아니라 역사나 문화, 민속연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각종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기획 등을 통해 연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향도부산』, 연구논문, 기획, 자료수록, 부산시사편찬위원회.

I. 머리말: 『향도부산』의 창간경위와 발간취지¹⁾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하는 『향도부산』은 1962년 12월에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60여 년 동안 49호를 발간하였다. 60여 년의 기간만 보면 발간횟수가 많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1969년 1월 제7호가 발간된 이후 계속 중단되다가 1991년 12월에 제8호가 복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간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년 1회 또는 2회로 발간하고 있다.

1) 이 부분은 『향도부산』 창간호(1962.12 발간)와 제8호(1991.12월 발간)의 발간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962년 『항도부산』 창간호가 발간될 무렵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연구지 또는 자료지 성격의 지방 역사를 알리는 경우는 매우 더물었다. 이점에서 『항도부산』 발간은 지방사 연구에도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될 즈음에 부산역사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부산시장을 중심으로 24명의 부산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부산시사』 발간을 위해서는 먼저 부산에 대한 자료수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항도부산』을 발간하였다.

『항도부산』 창간호의 발간사에 ‘우리 부산시는 과거의 역사적 발전 과정으로 보나 현재의 위치 비중으로 보아 각 시대 각 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복합한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캐어내고 밝혀나가서 앞으로 보다 정확하고 무게 있는 시사가 편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즉 『항도부산』은 앞으로 발간될 부산시사를 위하여 부산의 숨은 사실들을 발굴하는 자료집의 성격으로서 발간되었다. 특히 이것은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한국의 관문이면서 동양의 국제항으로 새출발을 하게 되어 부산 역사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시사편찬이라는 매우 뜻깊은 작업을 위하여 이를 위한 자료집 발간이라는 단초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업이었다.

따라서 『항도부산』 창간호에는 ‘부산시 관계 역대 선생안’을 비롯한 10개의 자료가 실려 있다. 이상과 같은 창간체제는 『항도부산』 제2호부터 변화를 꾀하였다. 즉 현재 『항도부산』 체제인 논문과 자료를 함께 수록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항도부산』은 1962년 12월에 처음 발간한 이래 1969년까지 7차례 발간하였다. 이후에 『항도부산』 발간은 중단되었다. 그리고 1974년에는 『부산시지』 상권을 발간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시사편찬사업은 중단

되었다. 이는 『향도부산』 발간에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어 순조롭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였다. 지방화시대는 국가의 감독 아래 지방주민의 자치로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일컫는다.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부산시는 부산의 발전은 지역민 스스로 이룩해야 한다는 사명 아래 부산의 역사를 체계화하고 연구하여 지역민들의 삶과 전통문화를 재조명하고 자치역량과 개발의지를 창출하여 전통성과 애향심 자부심을 복돋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부산시는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부산시사』 발간을 준비하였다. 1988년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부산시사』를 위한 본격적인 편찬 사업에 착수하였다. 4년여 동안의 작업으로 1989년 12월 31일[1권]부터 1991년 6월 30일[4권]까지 『부산시사(釜山市史)』 전 4권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간행하였다.

『부산시사』 편찬 이후 각종 향토자료의 발굴 및 향토사 연구의 새로운 장을 펼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향도부산』을 복간하였다. 『향도부산』 제8호의 발간사에 ‘『향도부산』의 창간정신을 그대로 잇고 향토사 관계자료의 발굴은 물론 향토사 각분야의 올바른 정립과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부산시상(釜山市像)을 설계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향토사연구지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특히 『향도부산』 제8호는 기획이라는 이름 하에 ‘지방화시대의 부산’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수록하였다. 이는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 태평양시대를 선도할 부산의 발전상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획’ 중심의 체제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 『향도부산』 발간에서 제8호는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향도부산』은 부산의 선사시대·삼한·가야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

개항기·일제강점기·해방과 한국전쟁기·현대·민속과 문화 등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산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기획논문과 부산의 역사·문화·사회 등에 관한 연구논문, 그리고 부산지역 고지도·고문서 등에 관한 자료를 소개하며 부산역사 관련 연구성과를 집대성해 왔다.

지금까지 『항도부산』에 실린 연구논문은 총 396편이고, 자료와 사료 번역, 서평 그리고 연구노트 등은 76편에 이른다. 연구논문은 평균 1호당 8.2편이고, 자료 등은 1편 정도 실렸다. 자료집으로 창간했을 때와 달리 현재는 연구논문 중심의 학술지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Ⅱ. 『항도부산』의 연구논문과 자료 수록 현황

1. 시대별 구분

『항도부산』 제49호까지 수록된 연구논문은 총 396편이고 자료 및 서평은 76편이다. 이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시대별 구분 기준은 『항도부산』 제17호 이후부터 기획주제로 ‘각 시대별의 부산’을 주제로 한 것에서 가져왔다. 그리고 시대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통사적인 연구논문은 기타로 구분하였다.

〈표 1〉 시대별 논문수록 현황

시대	논문수	비율
선사	11	2.33
삼한·가야	16	3.39
삼국·통일신라	18	3.81
고려시대	19	4.06

조선시대	69	14.62
개항이후	29	6.14
일제강점기	58	12.29
현대	122	25.85
기타	16	3.39
민속·문화	38	8.05
자료·서평	76	16.10
총	472	

『항도부산』은 부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모든 분야의 연구를 망라한 학술지이므로 지역사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표 1>의 시대별 논문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을 연구하는 역사 연구자들의 연구 동향을 알 수 있다.

첫째, 시대별 연구 비율이다. 『항도부산』의 총 수록글 중에서 현대사가 비율이 26%에 가까울 정도로 다른 시대 연구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대사 다음이 조선시대로 14%, 일제강점기는 12% 정도이다. 더욱이 자료와 서평 부분을 제외하면 현대사가 396편 중 31%에 해당한다. 민속과 문화 그리고 자료·서평부분을 제외하고 시대사를 중심으로 보면 근대사 이후 연구가 61%에 해당한다.

둘째, 이러한 연구논문의 비율이 근대사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부산이라는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과도 일치한다. 즉 부산이 근대화되면서 전통적인 면보다는 도시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근대 이전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적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연구경향은 부산을 전통도시가 아닌 조선시대 이후의 도시 또는 지역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지하듯 부산은 해운대 지역을 중심으로 구석기시대부터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삼한과 가야시대를 거쳐 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을 거친 지역이다. 특히 가야시대는 복천동박물관이라는 독립적인 가야시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시대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몇 시기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선사시대 부분이다. 선사시대는 11편으로, 전 부분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선사시대에 대한 연구논문은 제17호(2001. 7 발간)부터 수록되었다. 『항도부산』의 발간연대인 1962년, 그리고 복간된 1991년 이후 거의 10년간 선사시대에 관한 연구논문은 한편도 수록되지 않았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이 시대상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확보가 더딘 점도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즉 부산지역의 발굴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 시대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전환된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 부산의 여러 지역이 발굴되면서 그 성과가 축적되면서부터이다. 1990년대 대표적인 발굴지역만 나열하면, 해운대신시가지 좌동·중동지역, 동래 복천동 고분군 5차발굴, 동삼동패총발굴, 범방패총,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지역 내 우동/중동지역의 구석기유적지 등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11편 가운데 제17호에 실린 8편을 제외하면 『항도부산』에 실린 연구논문은 3편에 불과하다는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2001년 이후 부산지역에서 발굴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두구동 추정 지석묘, 노포동 유적, 용수리 가동 유적, 방곡리 유적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선사시대를 알려주는 자료들이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역사에서 선사시대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삼한과 가야시대에 관한 것이다. 전체 16편으로 비율이 3.39%이다. 이 시대 연구논문도 제18호(2002. 7)의 기획논문 6편을 제외하면 10편 정도에 불과하다. 주지하듯 부산은 가야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북

천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 등과 관련된 많은 유적과 출토유물이 있다. 1996년 복천박물관의 개관과 복천동고분군의 발굴이 연속되고 있는 점, 특히 2012년 이후 연산동고분군이 몇 차례에 걸쳐 발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에 관하여 보도록 한다. 조선시대 연구논문은 69편으로 비율은 14.62%이다. 아래 <표 4>의 『향도부산』에 수록한 자료부분에서는 조선시대가 40%에 가깝고, <표 5>의 발굴자료부분에서 조선시대가 34.6%로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비율이 높다. 또한 역사문헌자료에서 검색량이 많아지는 시기도 조선시대이다. 이는 고려말부터 왜구침략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산 침략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조선전기 부산은 대일관계에서 삼포 가운데 하나인 부산포가 있던 곳이고 삼포왜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대일외교의 중심지이다. 이점은 조선시대 또한 부산역사 연구에서 연구량이 많아야 할 시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근대사 이후에 치우친 『향도부산』의 경향을 극복하고자 제17호부터 기획논문 형태로 다양한 시대 연구를 집중 수록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부산의 선사문화’(『향도부산』 제17호), ‘삼한·가야시대의 부산(제18호)’, ‘삼국·통일신라시대의 부산(제19호)’, ‘고려시대의 부산(제20호)’, ‘조선 전기의 부산(제21호)’, ‘조선후기의 부산(제22호)’ 등이다. 또한 이를 종합하여 제23호에 ‘부산지역사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기획으로 12편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한편 『향도부산』은 역사 부분 뿐만 아니라 문화부분에도 연구논문이 적지 않게 수록되었다. 국문학, 민속학, 그리고 각종 예술 부분을 중심으로 그 성과를 담고 있다. 그리고 기획주제로 ‘부산의 전통문화(『향도부산』 제13호, 1996. 12)’, ‘부산의 현대문화(제14호, 1997. 12)’를 설정

하여 체계적으로 부산의 전통문화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래부의 관아건축, 고미술·불교미술, 음악사, 전시미술, 연극사, 영화사 등 쉽게 접하지 못한 부산의 문화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부산이 도시화되어 가면서 전통마을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전통마을에 대한 정확한 유래 등을 밝혀 지역명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부산을 주제로 하여 민속, 설화, 영화, 연극,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정리는 매우 가치있는 자료들이며, 이러한 연구는 지속되어 『항도부산』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를 바란다.

2. 기획주제별 구분

기획 또는 특집 주제별로 논문을 게재한 것은 『항도부산』이 복간된 제8호부터였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항도부산』의 복간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부산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기획주제별 현황

호수	기획 제목	출간연도
제8호	(기획) 지방화시대와 부산	1991.12.
제9호	(기획) 부산의 임진왜란	1992.12.
제10호	(기획) 17·18세기의 부산	1993.11.
제11호	(기획) 근대 개항기의 부산	1994.11.
제12호	(기획)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호	1995.12.
제13호	(기획) 부산의 전통문화	1996.12.
제14호	(기획) 부산의 현대문화	1997.12.
제15호	(기획) 일제강점기의 부산	1998.12.
제16호	(기획) 해방공간과 한국전쟁기 부산	2000.07.
제17호	(기획) 부산의 선사문화	2001.07.

제18호	(기획) 삼한·가야시대의 부산	2002.07.
제19호	(기획) 삼국·통일신라시대의 부산	2003.09.
제20호	(기획) 고려시대의 부산	2004.07.
제21호	(기획) 조선전기의 부산	2005.09.
제22호	(기획) 조선후기 부산의 사회와 문화	2006.09.
제23호	(기획) 부산지역사의 회고와 전망	2007.09.
제24호	(기획) 해방공간과 부산	2008.09.
제25호	(기획) 임시수도기의 부산	2009.05.
제26호	(기획) 4월 혁명과 부산	2010.05.
제27호	(기획) 부마항쟁의 재조명	2011.05.
제28호	(기획) 일제식민지 근대화론의 검토	2012.05.
제29호	(기획) 일제강점기 부산항 연구	2013.05.
제30호	(기획) 한국전쟁 전후 부산항 연구	2014.05.
제31호	(기획) 1960·70년대의 부산항 연구	2015.05.
제32호	(기획) 1980·90년대 부산항 연구	2016.05.
제33호	(기획) 통신사 자료의 역사적 가치	2017.02.
제34호	(기획) 연산동고분군을 통해 본 고대 부산	2017.08.
제35호	(기획) 한국전쟁과 부산	2018.02.
제36호	(기획)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	2018.08.
제37호	(기획)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집기획 ‘부산의 3·1운동과 항일독립운동’	2019.02.
제38호	(기획) 임진왜란과 부산	2019.08.
제39호	(기획) 해양도시 부산의 문화교류	2020.02.
제40호	(기획) 부산지역 민주화 운동	2020.08.
제41호	(기획) 부산지역 민주화 운동	2021.02.
제41호	(특집) 서영해와 황순조의 활동	2021.02.
제42호	(특집) 부산지역 개항과 해양교류의 역사	2021.08.
제43호	(기획) 피란수도 부산의 의료생활사	2022.02.
제43호	(특집) 만덕동사지와 고려시대 부산불교문화	2022.02.
제44호	(기획) 일제강점기 부산의 군사 요새화	2022.08.
제45호	(기획) 부산지역 근현대 제조업과 지역경제 변천사	2023.02.
제46호	(기획) 부산지역 구비문학 조사성과와 의의	2023.08.
제47호	(기획) 최신자료로 본 고려시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	2024.01.
제48호	(특집) 고고학으로 본 배산성의 성격과 변화상	2024.07.

제48호	(특집) 『남천일록』	2024.07.
제49호	(기획)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부산지역 사회사	2025.01.

이상의 <표 2>에서 보듯이 『항도부산』은 제8호부터 기획이나 특집의 형태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를 다시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기획도 어떤 시대에 집중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다. 기획 또는 특집 주제를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시대별 기획주제별 현황

시대	기획주제	수록호	비율
선사	(기획) 부산의 선사문화	제17호	2.4
삼한·가야	(기획) 삼한·가야시대의 부산	제18호	2.4
삼국·통일신라	(기획) 삼국·통일신라시대의 부산	제19호	4.9
	(특집) 고고학으로 본 배산성의 성격과 변화상	제48호	
고려시대	(기획) 고려시대의 부산	제20호	4.9
	(특집) 만덕동사지와 고려시대 부산불교문화	제43호	
	(기획) 최신자료로 본 고려시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	제47호	
조선시대	(기획) 부산의 임진왜란	제9호	14.7
	(기획) 17·18세기의 부산	제10호	
	(기획) 조선전기의 부산	제21호	
	(기획) 조선후기 부산의 사회와 문화	제22호	
	(기획) 통신사 자료의 역사적 가치	제33호	
	(기획) 임진왜란과 부산	제38호	
	(특집) 『남천일록』	제48호	
	(기획)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부산지역 사회사	제49호	
개항기	(기획) 근대 개항기의 부산	제11호	2.4
일제강점기	(기획) 일제강점기의 부산	제15호	12.2
	(기획) 일제식민지 근대화론의 검토	제28호	
	(기획) 일제강점기 부산항 연구	제29호	
	(기획)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집기획 ‘부산의 3·1운동과 항일독립운동’	제37호	
	(기획) 일제강점기 부산의 군사 요새화	제44호	

현대	(기획) 지방화시대와 부산	제8호	36.6
	(기획)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호	제12호	
	(기획) 해방공간과 한국전쟁기 부산	제16호	
	(기획) 해방공간과 부산	제24호	
	(기획) 임시수도기의 부산	제25호	
	(기획) 4월 혁명과 부산	제26호	
	(기획) 부마항쟁의 재조명	제27호	
	(기획) 한국전쟁 전후 부산항 연구	제30호	
	(기획) 1960·70년대의 부산항 연구	제31호	
	(기획) 1980·90년대 부산항 연구	제32호	
	(기획) 한국전쟁과 부산	제35호	
	(기획) 부산지역 민주화 운동	제40호	
	(기획) 부산지역 민주화 운동	제41호	
	(기획) 피란수도 부산의 의료생활사	제43호	
	(기획) 부산지역 근현대 제조업과 지역경제 변천사	제45호	
기타	(기획)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호	제12호	12.2
	(기획) 부산지역사의 회고와 전망	제23호	
	(기획) 연산동고분군을 통해 본 고대 부산	제34호	
	(기획)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	제36호	
	(기획) 해양도시 부산의 문화교류	제39호	
	(특집) 서영해와 황순조의 활동	제41호	
	(특집) 부산지역 개항과 해양교류의 역사	제42호	
민속·문화	(기획) 부산의 전통문화	제13호	7.3
	(기획) 부산의 현대문화	제14호	
	(기획) 부산지역 구비문학 조사성과와 의의	제46호	

위의 <표 2>와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향도부산』의 기획주제의 경우도 <표 1>의 수록논문과 같이 근대사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개항기 2.4%, 일제강점기 12.2%, 현대사 36.6%이다. 이를 합하면 근대사 이후는 51.2%에 해당한다. 특히 현대사의 주제는 해방공간, 임시수도, 4월 혁명, 부마항쟁, 한국전쟁, 민주화, 근대 제조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주제어만 보더라도 부산의 현대사를 잘 드러내는 중요사건

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항도부산』의 기획이 이렇듯 현대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부산의 역사에서 현대사의 여러 사건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근현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은 조선시대 부분이다. 조선시대의 주제는 임진왜란, 통신사, 고문서 등이다. 이 가운데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부산지역 사회’는 최근 조선시대 부산사회사를 밝히는 고문서 등이 많이 발굴되고 『항도부산』을 통해 소개되면서 이러한 기획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점은 역사연구자들의 조선시대 자료발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료수집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몇 년 전에 금정구청에서 주관하는 부산의 임진왜란과 관련한 주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발표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부산의 의병과 관련한 각 집안의 족보 또는 고문서 등을 수집하고 고찰할 기회가 있었다. 또 2018년에 금정구청에서 ‘금정 역사기록찾기 수집 공모전’을 개최하였는데, 914점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공모전에 경주이씨 집안의 조선후기 및 일제강점기의 문서와 호패 등 162점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필자는 이 공모전의 심사자로 참가하였는데, 대상으로 선정된 경주이씨 소장의 고문서는 매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대상을 받은 경주이씨자료의 기증자는 집안의 자료를 보관할 곳이 없고, 이를 기증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금정구청의 이 공모전에 지원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금정구청에서 이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콘텐츠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필자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시나 부산시사편찬위원회에서 이러한 공모전 등을 통해 부산에 산재하는 지역 자료를 주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외의 시대사와 관련한 기획은 적으며 거의 1-2주제에 불과하다. 이는 <표 1>의 시대별 수록논문의 경향과도 일치한다. 수록논문은 연구

자의 투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기획 등은 『항도부산』을 주관하는 부산시사편찬위원회의 의지와 관련된다. 이점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근대사 이후의 부산에 관한 주제뿐만 아니라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부산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기획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부산시사편찬위원회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3. 자료 수록 현황

『항도부산』에 수록된 연구논문 이외에 자료 및 서평은 76편에 달한다. 『항도부산』의 발간이 『부산시사』를 위한 자료집이라는 데서 출발한 점을 상기한다면 『항도부산』의 자료수록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즉 『항도부산』의 발간정신을 계승하면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부산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료를 연구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그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자료 수록 현황

시대	자료 및 기타	비율
고대	부산지방의 패총	1.32
신라	기장군 정관면 석탑사 탑재의 형식 분석	1.32
조선	부산시 관계 역대 선생안	38.16
	금석문 및 현판자료	
	동래부지	
	충렬사지	
	역대선생안(관안)	
	『조선왕조실록』 부산 관계 초존(태조 원년-세종 18년)	
	『조선왕조실록』 부산 관계 초존(세종 19년-세조 11년)	
	포충적후록	
	북호녹권	
	『조선왕조실록』 부산 관계 초존(세조 12년-성종 10년)	

	동래부계록초	
	열성록초	
	조선사무서에 대하여	
	비변사등록초	
	동래부 동하면 고문서에 대하여	
	동래부 남촌면 고문서 해제	
	19세기 동래부 동하면 못골의 동래정씨와 이들의 고문서	
	동래부 이교배 및 삼청의 범어사에 대한 토색작폐 금지절목	
	한말 동래 지전 이광옥 집안과 그의 문집 및 장서	
	18-20세기 초 동래부 거별리 남원양씨 집안과 그 고문서	
	『성역급각공청중수기』 해제	
	부산·동래 유기자료에 대하여(1)-조선후기 부산동래 기행시문을 중심으로-	
	부산·동래 유기자료에 대하여(2)-조선후기 부산동래 기행시문을 중심으로-	
	부산·동래 유기자료에 대하여(3)-19세기 강석 유람객의 기행시문을 중심으로-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통신사 자료	
	19세기 동래부 『사상면 호적중초』의 내용과 사상면 지역사회의 성격	
	동래읍성과 관아 건물 관련 엽서 자료	
	1801-1806년, 유배객 심노승이 경험했던 기장-『남천일록』 수록 기장관련자료	
	기장 효암리 전복바위와 관련 자료들	
개항기	조선귀호여록초	7.90
	개항직후의 무역상업 관계 사료초	
	개항기 부산 사회상에 관한 자료	
	대한제국기 부산 북항 매축관계 자료의 내용과 성격	
	1895년 전후 동래의 행정문서들과 그 특성	
	주한일본영사관의 개항장 관련보고 『통상휘찬』 한국편의 부산항 기록 소개	
	부산남항 매축자료	23.68
	부산 근대 공업 발달사 관계 사료 해설	
	재부산 일본령 관내 경상도사정 부산관계초	

일제 강점기	절영도 조차문제에 관한 일본외교문서초	
	부산지역 항일독립운동 관계 유적 및 유물	
	근대 부산지역 금융관련 자료와 그 성격	
	일제강점기 구포와 『구포향토지』의 사료적 가치	
	조전기선주식회사의 경영자료 분석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시가지 계획서에 관한 공문서	
	일제말 전시해운과 부산항 관계 자료소개	
	일제말 부산 적기만의 매립과 임항철도 건설사업	
	일본경질도기주식회사의 경영자료(1908~1944)	
	『동래 함락의 날』에 대하여	
	재조일본인기업가 이케다 스케타다(지전좌충) 관련 자료 (가족소장자료)	
	일제강점기 부산발행 일본어신문에 대하여	
	국립해양박물관 『조선부산일본거류지』 지도 및 관련 일괄 자료 소개	
	근대 한국 전화번호부의 소장상황과 1924년판 부산 전화번호부 자료 해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부산지역 강제동원 관련 자료소개	
현대	경상남도도청 이전 관계 자료	10.53
	경부선철도 관계 자료	
	조선중공업주식회사 경영자료의 내용과 성격	
	『제2회 군정경상남도고문참여관회의록』의 내용과 성격	
	1950년대 조선방직주식회사 쟁의 관련 문서	
	『독립유공자 공훈록』(국가보훈처) 해제 및 부산지역 출신 독립유공자 수록 현황	
	부산표구사 이야기(연구노트)	
	‘피란수도 부산’의 공간정보 수집과 생활사 연구를 위한 하나의 작은 데이터베이스-『전국관공서·단체·상공 직업별요람부』	
민속 문화	수영유사	6.58
	수영야유극 대본	
	가덕도 민간요법	
	개인 소장 『농가월령가12곡병』-경직고의 새로운 사례- 『부산의 당제』 유보 자료	

기타	부산·동래에 관한 도서 해제	10.53
	부산시 일대의 동·식물 분류 목록	
	부산 시내 금석문 및 현판사료 조사 보고	
	부산의 고적과 유물에 관한 자료	
	부산지역의 기념비 현황(Ⅰ)-해방 이전을 중심으로	
	부산지역의 기념비 현황(Ⅱ)-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부산지역 고지도 연구	
	부산역사 ‘살아있는’ 지역 교과서로 탄생하다-부산광역시 『부산역사, 청소년과 만나다』	

위의 <표 4>는 『항도부산』에 실린 자료 또는 사료, 그리고 서평을 시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중심으로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하도록 한다. 첫째 자료 비율면에서 조선시대가 가장 높다. 이는 앞서 언급한 <표 1>의 시대별 논문수록 현황과 <표 3>의 시대별 기획주제별 현황과 다른 점이다. 즉 <표 1>과 <표 3>에서는 근대사 이후가 대중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표 4>의 자료 수집 수록 현황에서는 조선시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부산시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하고 있는 도서 가운데 『부산사료총서』 시리즈가 있다. 이 시리즈는 『국역 왜인구청등록』·『국역 왜객사별등록』·『국역통신사등록』·『국역조선사무서』 등 조선시대 사료를 번역한 총서이다. 즉 『항도부산』 수록 자료뿐만 아니라 『부산사료총서』 사업이 조선시대에 집중되어 있는 점에서 앞서 <표 1>의 시대별 논문수록 현황의 조선시대 관련 논문 수록의 양이 적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조선시대 부산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면 부산시사편찬위원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를 합하면 31%에 해당하는 수록량을 나타낸다. 개항기는 주로 무역과 매축자료, 일제강점기는 매축자료, 한일

관계에 관한 외교, 독립운동, 부산항 관련, 공업회사 자료 등에 관한 것이다.

다만 <표 4>의 자료수집 수록비율과 <표 3>의 시대별 기획주제별 현황을 연관시키면 이 부분에 대한 기획은 매우 소략한 편이다. 또 이 시기의 <표 1>의 수록논문수도 18%정도이다. 즉 <표 1>과 <표 3>의 시대별 수록논문수와 시대별 기획주제별 현황과 비교하면 <표 4>자료 수집 수록 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산시사편찬위원회에서 매축자료와 기선회사, 도질회사 등의 자료 등을 참조하여 이와 관련한 기획을 마련하는 시도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표 4>의 자료수집 수록비율에서 현대사는 10% 정도이다. 이는 앞의 <표 1> 시대별 수록논문수나 <표 3>의 시대별 기획주제별 현황면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즉 연구논문수와 기획주제는 각각 26%, 37%인 것에 비하여 자료수록 현황은 매우 적은편이다. 이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부산 관련 연구주제가 현대사에 치우친 경향이라는 점과 함께 부산시사편찬위원회에서도 현대사 관련 자료 수집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넷째, 『향도부산』이 발간된 이래 자료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지만, 실제로 『향도부산』에 실린 논문이나 기획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는 듯하다. 예를 들어 개항기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이 시기의 부산역사를 구명하기 위한 기획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앞의 <표 3>에서 보듯이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은 1994년에 발생한 『향도부산』 제11호가 유일하다. 물론 자료발굴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보인다. 조선시대 자료 가운데 고문서 관련 자료가 많이 소개되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2025년 1월에 발간된 『향도부산』 제49호의 기획주제로 ‘고문

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부산지역 사회사'인 것이다.

다섯째,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자료부분에서도 조선시대 이전의 비율은 매우 낮다. 주지하듯 1990년 이후에 부산지역에는 발굴과 그에 따른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시대 이전의 자료소개가 거의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쉽다. 특히 『항도부산』의 출발이 자료집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에서 부산역사를 고증하는데 자료의 소개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표 1>에서 보듯이 『항도부산』에 수록된 시대별 연구논문에서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를 복원하고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위의 다섯째의 문제지적과 같은 내용이지만 민속·문화 부분의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부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부산역사문화대전' 사이트의 민속·문화 부분을 살펴보면 그 항목수가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수집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부산시가 도시화되고 전통마을이 사라지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수집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에 대한 수집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Ⅲ. 맺음말: 『항도부산』 발간 의미와 제언

『항도부산』의 발간의 의미와 몇 가지 제언하는 것을 중심으로 맺음말에 대신한다. 첫째, 『항도부산』은 전문학술지가 거의 없던 1962년에 부산 역사를 복원하기 위하여 창간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차례의 중단이 있었지만 1991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항도부산』은 복간되어 현재 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둘째, 자료수집이라는 목적으로 창간한 『향도부산』의 발간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점이다. 『향도부산』의 창간은 1962년 부산시가 직할시 승격을 기념하여 향후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으로 『부산시사』 편찬을 목적으로 부산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는 기초작업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이는 『부산시사』 편찬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자료수집을 통해 오랜기간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부산시사편찬위원회의 막중한 책임의식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적 성격의 『향도부산』은 제2호부터 변화하여 연구논문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부산에 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시민들뿐만 아니라 해당시기의 연구자들에게 많은 연구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표 1> 시대별 연구논문수, <표 2>와 <표 3>의 기획주제별 논문 현황, 그리고 <표 4>자료수록 등에서 볼 때 『향도부산』은 조선시대사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주지하듯 부산은 구석기시대부터 장구한 역사를 보유한 도시이다. 그런데 연구논문과 자료소개가 조선시대 이후에 집중되다 보니 부산의 이미지가 근현대도시로만 각인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시민이나 외지인들의 시각에서는 부산이 전통이 없는 도시로 비쳐질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부산의 역사에만 국한하는 연구 경향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자료발굴이라든지 또는 자료소개 등 뿐만 아니라 기획주제의 발굴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표 4> 자료수집에서만 보더라도 고대와 신라시대의 것은 전자는 창간호, 후자는 제27호(2011. 5)에 실린 것뿐이다.

이상과 같은 『향도부산』 연구논문수록과 자료 수록 경향은 선사나 고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이나 관계자들이 『향도부산』에 거의 투고하지 않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시

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시대상을 구명할 수 있는 기획이나 자료발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넷째, 『항도부산』 발간을 주관하는 부산시사편찬위원회의 활동은 다방면에 걸쳐 많은 업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항도부산』 발간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를 알리는 전문연구기관이 있는 곳도 많지 않다. 현재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그리고 강원도 뿐이다.

또한 『항도부산』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지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간행된다는 점이다.²⁾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리하는 한국의 수많은 학술연구지는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연구학술지를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높은 등급을 받기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점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시사편찬위원회에서 부산역사에 대한 관심과 우수한 논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등재지라는 결실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특히 부산시사편찬위원회에서 『항도부산』에 수록된 논문에 한해서는 일정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높게 평가될 부분이다. 이러한 부산시사편찬위원회의 활동은 부산역사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전문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항도부산』의 발간의미와 함께 과제도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의 전공인 고려시대 부분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항도부산』에 수록된 고려시대의 논문은 겨우 19개이고, 기획 또는 특집으로는 3개 주제로 한정되었다. 먼저 기획으로 만들어진 제20호(2004. 7)의 제목이 ‘고려시대의 부산’이다. 여기에 실린 논문은 ‘고려시

2)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등재학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와 부산시 뿐이다.

대 부산지역의 지방행정구조’,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경제-특히 수취체제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부산문화의 중핵, 정과정’,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문화재 현황과 그 역사적 의의’이다. 이 연구논문들은 『부산시사』 편찬 이후 고려시대에 관한 내용을 처음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제20호 이전까지는 고려시대 관련 논문이 거의 수록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획된 것이므로 의미는 있다.

다음은 제43호(2022. 2)의 특집으로 편찬한 ‘만덕동사지와 고려시대 부산불교문화’이다. 부산의 고려시대 대표적인 사찰로 만덕사지를 들고 있다. 부산의 고려시대의 불교사상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집은 매우 의미있는 기획이다. 이는 만덕사지에 대한 발굴이 최근 여러 차례 이루어져 이를 반영한 특집이라고 할 수 있다. 제43호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중세 부산의 역사와 만덕동사지’, ‘고려시기 기비사의 건립과 기능’, ‘부산 만덕사지 가람배치와 창건 연대’, ‘기와로 본 부산 만덕동사지의 성격’이다. 이는 만덕사지의 발굴 성과와 문헌자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논문이므로 만덕사의 정체를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7호(2024. 1)의 ‘최신자료로 본 고려시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이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은 ‘부산지역 고려유적의 발굴 성과와 그 해석’, ‘부산지역 고려유적 출토 명문 기와의 성격’, ‘부산지역 고려유적 출토 청자의 현황과 특징’, ‘부산지역 고려 사원지와 불교 문화’이다. 이 기획에서 실린 논문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의 자료 현황과 부산의 고려시대사를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논문 가운데 ‘부산지역 고려유적의 발굴성과와 그 해석’에서 부산에서 고려시대 역사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의 한가지로 다음의 표를 제시하였다.³⁾

〈표 5〉 부산지역 유적 시기별 현황

구분	선사	삼한-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현대	미상	계
문화유적 분포지도	58 (4.3%)	196 (14.7%)	36 (2.7%)	473 (35.5%)	307 (23.0%)	265 (19.7%)	1335
지정 문화재	3 (3.4%)	12 (13.5%)	5 (5.6%)	31 (34.8%)	22 (24.7%)	16 (18.0%)	89
지표조사 보고서	36 (14.8%)	66 (27.3%)	19 (7.8%)	56 (23.1%)	1 (0.4%)	64 (26.4%)	242
시발굴 보고서	65 (19.0%)	105 (30.7%)	32 (9.4%)	134 (39.2%)		6 (1.7%)	342
계	162 (8.15%)	379 (18.9%)	92 (4.6%)	694 (34.6%)	330 (16.4%)	351 (17.5%)	2,008

부산의 고려시대에 관련한 자료가 신라시대보다 적은 것은 고려의 수도가 개경으로 옮겨짐에 따라 부산이 변방으로 그 위상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위의 <표5>에 의하면 부산에서 고려시대 발굴 관련 조사는 가장 적은 4.6%에 불과하다. 이 <표5>에서도 유적비율은 조선시대(34.6%), 삼한-통일신라시대(18.9%), 근현대(16.4%) 순이다. 이점은 고려시대 부산역사를 복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다. 당연 고려시대는 문헌자료도 많지 않다.

현재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고려시대 부산역사의 복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부산시사편찬위원회의 기획에 의하여 학술논문으로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특히 『항도부산』 제47호의 여러 논문들은 지금까지 고려시대 부산역사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 등을 정리하고 있다.

필자의 역량으로는 이를 넘어서는 제언을 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이

3) 신은제, 『부산지역 고려유적의 발굴성과와 그 해석』, 『항도부산』 47, 2024, 3쪽 표를 인용한 것이다.

상의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먼저 부족한 자료와 발굴자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려시대 자료에만 한정하지 않고 통일신라시대와 조선초기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산이 위치한 지리적 특징을 살펴 인근 지역과 관련된 자료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부산주변의 울산, 김해 등지에 발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물의 상호 비교 등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최근 고려시대 도로망이나 출토유물의 문양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개개별로 보지 않고 부산의 도로망과 교역망을 통해 전체적인 조망 아래 인근지역과 상호교류 등을 구명해야 된다고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만 제언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 경제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부산은 지리적으로 낙동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므로 교역의 중심지임에는 틀림이 없다. 대일관계에서도 지금의 강서구 지역이 당시의 금주객관터이므로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부산지역에서 세력가의 무덤으로 고찰되는 덕천동유적은 주목되었다.⁴⁾ 이 분묘는 고려시대 분묘로 16기가 발견된 곳으로, 부산에서 발굴되었던 청자 가운데 최고의 양질의 청자와 중국 동전이 확인된다. 청자와 동전은 상품과 매매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이 지역의 지표이다. 중국동전만 하더라도 사용자는 재지향리층들이다. 이들은 공물납부와 관련하여 중앙의 경시에 참여하면서 중국 및 중앙의 우수한 상품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이러한 속에서 중국전 역시 지방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고려에 유입된 중국동전들은 양국간의 교역이 활발한 시기에 주조된 것이 많으므로 양국간의 교역의 단편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는가 한다.⁵⁾

4) 덕천동유적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바람. 동아대학교박물관, 『구포덕천동유적』, 2006; 부산박물관, 『부산덕천동고분』, 1981; 이종봉,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대외 교류」, 『항도부산』 20, 2004.

5) 정용범, 「고려시대 중국전 유통과 주전책·성종·숙종 연간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이점은 덕천동을 중심으로 교역의 유통망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덕천동 지역은 부산의 상품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출발지로서 역할을 한 곳이 아닌가 한다. 기존에 여러 연구에서 덕천동유적을 중시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교역망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더 확대하여 덕천동 주변에 소재하는 화명동의 용당 유적,⁶⁾ 화명동 고분군,⁷⁾ 그리고 앞서 언급한 금주객관 등지를 연관시켜 볼 때 다채로운 고려시대 부산의 경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유통망을 사원경제와 관련하여 볼 수 있는 것이 만덕사이다.⁸⁾ 만덕사에 대한 발굴도 여러 차례 시행되었고, 만덕사의 실체가 어느 정도는 구명되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만덕사 발굴자료에 의하면 만덕사라는 사찰명은 나오지 않고, 기비사 또는 송선사라는 사찰명이 찾아진다. 그래도 만덕사라는 사찰명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도 만덕사라고 명명하도록 한다. 만덕사는 부산시 북구 만덕1터널 주변에 있어 덕천동 유적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다. 또한 만덕사는 동래-덕천-낙동강-김해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므로 원의 역할을 하였으리라는 연구도 있다.⁹⁾ 사찰은 고려 경제의 생산지 또는 유통망의 중심이었다. 당시 승려들은 자신의 사찰에서 생산한 물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고, 원은 이러한 승려들의 숙박시설이다.

4. 1997, 128~129쪽,

6) 정의도, 『양산 용당 가여진사』, 『문물』 4, 2014.

7) 한국문화연구원, 『부산 화명 주공아파트 재건축부지내 부산화명동 898-7번지유적』, 2010; 한국문화연구원, 『부산화명동 조선시대 분묘군』, 2012.

8) 만덕사지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을 참조바람. 복천박물관, 『부산만덕사지』Ⅲ, 2007; 부산박물관, 『부산만덕사지』, 1993; 부산박물관, 『부산만덕사지』Ⅱ, 1998; 부산박물관, 『만덕사지 당간지주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4; 이종봉, 『중세 부산의 역사와 ‘만덕동 사지’』, 『항도부산』 43, 2022, 조명제, 고려시기 기비사의 건립과 기능, 『항도부산』 43, 2022, 양은경, 『부산 만덕사지 가람배치와 창건연대』, 『항도부산』 43, 2022; 최정혜, 『기와러 본 부산 만덕동사지의 성격』, 『항도부산』 43, 2022.

9) 최연주, 『부산지역 고려 사원지와 불교문화』, 『항도부산』 47, 2024, 137쪽.

이상에서 살펴볼 때 덕천동과 만덕사는 또 하나의 부산경제의 중심지로서 만덕사는 생산지 또는 판매자로서, 덕천동은 소비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¹⁰⁾ 이렇게 되면 덕천동유적의 세력은 부산 상품을 교역하는 중심지이자 또한 소비자로서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게 된다. 한편 덕천동 세력가들은 만덕사의 단월로서도 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아 경제와 종교의 공동체로서 상존하는 집단으로 추정된다.

둘째, 부산의 고려시대 사찰로 용당유적을 들 수 있다.¹¹⁾ 이곳은 부산시 남구 용당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5년 경남문화재연구원의 발굴로 고려시대 건물지 3동, 기단 석렬 1개 등이 확인되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기와와 불두에 사찰명이 명시되었으므로 절터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는 기존의 만덕사 중심의 고려시대 불교사를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유적지이다. 용당유적 발굴에 14세기 중기 이후의 양질 상감청자가 많이 출토되어 이 무렵 사찰이 왕성하게 운영되었으리라 본다. 이 용당유적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현 고적조에 ‘형변부곡은 신라 때 남해신을 모셨다. 中祀에 실려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고려시대 형변부곡이 있었던 지역이 용당유적이다. 그렇다면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神祠일 가능성도 있다. 보통 해안가 주변의 사찰에 필수적으로 부속되어 있는 것이 용왕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양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고려시대 부산유적지에서 출토된 청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교역관계를 알 수 있다.¹²⁾ 부산에서 고려청자가 발굴된 유적은 총 22개이고, 분묘, 사찰, 성곽, 관방, 생활, 생산유적 등이다. 고급 청자는 사

10) 물류와 교통 거점으로서 만덕사지를 해석한 연구성과는 최연주의 위의 논문 참조.

11) 용당유적과 관련해서는 경남문화재연구원, 『부산용당동유적』, 2007 참조.

12) 부산박물관, 『부산 도자기 천년의 지혜를 담다』, 2014; 최영문, 『고려후기 낙동강 이동의 상감청자 연구』, 『지역과 역사』 41, 2017.

찰이나 관아, 호족의 무덤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고, 그 외는 청자발과 청자접시가 주류를 이루었고 조악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청자가 출토되는 시기는 12세기 중기 무렵부터이고 녹산동이 청자의 생산지이다. 녹산동이라는 지역도 강서구 지역이고 앞서 언급한 덕천동, 금주객관 등지와 가까운 지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역망의 추정도 가능하다. 특히 고려후기에 상감청자의 출토율이 증가된다는 것은 재지세력의 위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등 인근의 청자가 다량 유입되는 정황도 알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발굴된 청자는 강진지역의 청자와 문양이나 기법이 동일하므로 강진지역의 도공들이 부산에 유입되어 활동한 것이 아닌가 한다.

최근 부산의 고려시대 청자가 다양한 지역에서 발굴되고 이에 대한 문헌과 유물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의 고려시대 청자’에 대한 기획도 마련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본다.

이외에도 온천동차발굴유적지를 둘러싼 관방시설, 각 발굴지에서 출토되는 기와 등을 통해 부산의 고려시대를 복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¹³⁾ 이상과 같은 고려시대 연구를 위한 제언을 몇가지 해보았다. 물론 이러한 제언에는 실제 연구로서 이루어진 부분도 적지 않다. 다만 개별적으로 하는 연구를 부산시사편찬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 고려시대 부산역사상을 복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3) 최근의 연구성과는 다음을 참조 바람. 부경문화연구원, 『부산 온천동 차발굴 유적』, 2016; 구산우, 『부산 동래에서 출토된 새로운 고려 기와 명문-기와의 조달, 공공 건물로서 오리정과 관련하여』, 『항도부산』 43, 2022; 최정혜, 『기와로 본 부산 만덕동사지의 성격』, 『항도부산』 43, 2022.

| 참고문헌 |

- 경남문화재연구원, 『부산용당동유적』, 2007.
- 동아대학교박물관, 『구포덕천동유적』, 2006.
- 북천박물관, 『부산만덕사지』Ⅲ, 2007.
- 부경문화연구원, 『부산 온천동 차발골 유적』, 2016.
- 구산우, 「부산 동래에서 출토된 새로운 고려 기와 명문-기와의 조달, 공공 건물로서 오리정과 관련하여」, 『향도부산』 43, 2022.
- _____,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지방행정구조」, 『향도부산』 20, 2004.
- _____, 「부산 동래에서 출토된 새로운 고려 기와 명문-기와의 조달, 공공 건물로서 오리정과 관련하여」, 『향도부산』 43, 2022.
- 김세진, 「부산지역 고려유적 출토 청자의 현황과 특징」, 『향도부산』 47, 2024.
- 김현라,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문화재 현황과 그 역사적 의의」, 『향도부산』 20, 2004.
- 부산박물관, 『부산덕천동고분』, 1981.
- _____, 『부산만덕사지』, 1993.
- _____, 『부산만덕사지』Ⅱ, 1998.
- _____, 『만덕사지 당간지주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4.
- _____, 『부산 도자기 천년의 지혜를 담다』, 2014.
- 부산시사편찬위원회, 『향도부산』 창간호, 1961.
- _____, 『향도부산』 8, 1991.
- 신은제, 「최신자료로 본 고려시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 『향도부산』 47, 2024.
- 양은경, 「부산 만덕사지 가람배치와 창건연대」, 『향도부산』 43, 2022.
- 이정희,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경제-특히 수취체제를 중심으로」, 『향도부산』 20, 2004.
- 이종봉,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향도부산』 20, 2004.
- 이종봉, 「중세 부산의 역사와 ‘만덕동사지」」, 『향도부산』 43, 2022.
- 정용범, 「고려시대 중국전 유통과 주전책-성종-숙종 연간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 1997.
- 정의도, 「양산 용당 가여진사」, 『문물』 4, 2014.
- 조명제, 「고려시기 기비사의 건립과 기능」, 『향도부산』 43, 2022.
- 최연주, 「부산지역 고려 사원지와 불교문화」, 『향도부산』 47, 2024.

- 최영문, 「고려후기 낙동강 이동의 상감청자 연구」, 『지역과 역사』 41, 2017.
- 최정혜, 「기와로 본 부산 만덕동사지의 성격」, 『항도부산』 43, 2022.
- 한국문화연구원, 『부산 화명 주공아파트 재건축부지내 부산화명동 898-7번지유적』, 2010.
- _____, 『부산화명동 조선시대 분묘군』, 2012.
- 황병익, 「고려시대 부산문화의 중핵, 정과정」, 『항도부산』 20, 2004.
- 홍영의, 「부산지역 고려유적 출토 명문 기와의 성격」, 『항도부산』 47, 2024.

투고일: 2025. 04. 30. 심사완료일: 2025. 06. 02. 게재확정일: 2025. 06. 20.
--

| Abstract |

Review and Prospect of the 50th issue of the publication
of 『HANGDO BUSAN』

Kim, Hyeon-Ra

『HANGDO BUSAN』 organized by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Busan has been on the verge of publishing its 50th issue since its first issue was published in 1962. 『HANGDO BUSAN』 was published in 1961 for the purpose of a collection of materials for the compilation of current events when the Busan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This system has changed from the second album of the 『HANGDO BUSAN』 to a system that contains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related to Busan together, and has continued its system so far.

『HANGDO BUSAN』 covers a variety of topics related to Busan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including the prehistoric period, Samhan, Gaya period, Goryeo period, Joseon period, Harbor-opening Period,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Korean War period, modern times, folklore, and culture. In terms of data, he has compiled research results related to Busan history by introducing data on ancient maps and ancient documents in the Busan area.

A total of 396 research papers have been published up to the 49th edition of the 『HANGDO BUSAN』 and 76 data and book reviews.

If you look at the 472 articles in the 『HANGDO BUSAN』 by period, planning theme, and data, they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Looking at it by period or planning theme, the emphasis is placed after modern history, and the image of Busan can be recognized only as a modern city

without tradition. In particular, despite the largest number of data from the Joseon Dynasty, it did not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of planning and research papers during the Joseon Dynasty. Of course, the recording, planning, and recording of research papers from the prehistoric period to the Goryeo period are only a small number that cannot be compared to other times.

And to complement the biased research thesis and data recording trend of 『HANGDO BUSAN』 as above, Active interest and research from not only the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Busan, which compiles 『HANGDO BUSAN』, but also history, culture, and folk researchers are needed. To this end, the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s Historical Compilation Committee will have to actively review ways to collect various data and guide researchers' participation through planning.

Key Words: 『HANGDO BUSAN』, Research Papers, Planning, and Data,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Busan.

